



열린마당



저성장 시대의 행복한 경제생활

조진환 _ 희망경제교육 대표이사

나는 우리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이 돈에 관한 주도권을 쥐고 현명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금융회사와는 다른 관점의 글을 쓰고, 돈 관리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충남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곳에서 경제를 강의한 시간이 4년이 넘었다.

10여 년 전에는 경제 강의라고 하면 나라경제에 관한 것이나 경제학공부를 하는 걸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일부 수강생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일확천금을 벌게 해주는 내용일거라 착각해 필자의 강의 내용에 실망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어 왔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돈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경제라는 걸 알게 되면서 강의 내용에 호응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효과적인 돈 관리방법이나 금융지식 펀드투자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를 업그레이드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돈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취약계층에서부터 평범한 주부들과 교사 공무원 등 그분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은 천차만별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이 점점 더 커지게 마련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비

관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적절
한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금융회사나 미디어의
부추김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수강생 스스로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주
요 역할이라 생각했다.

다음에 나오는 다섯 개 주제의 글은 돈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돈 관리 방법
이나 금융지식을 알기 전에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로 생각지도 못했던 수익을 얻기 전에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다. 이 글이 여러분의 경제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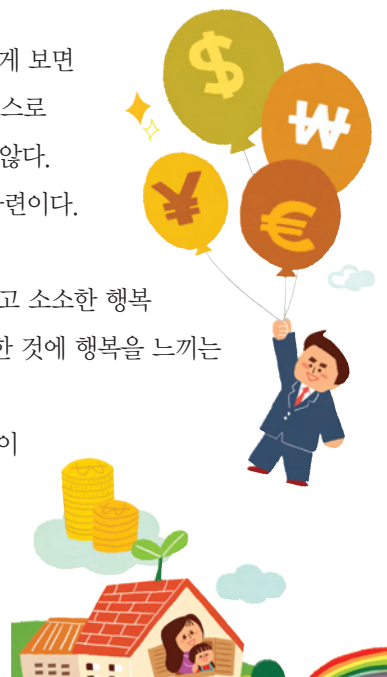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행복은 빈도”라는 말이 있다. 아주 큰 행복이 가끔 있는 것보다 작고 소소한 행복감이 자주 있는 게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행복만을 쫓기 위해 노력하고 큰 행복
이 스스로를 더 기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 좋은 집을 장만하거나 멋진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 더 넓게 보면
자녀의 명문대 합격이나 가장의 경제적 성취 등이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삶이 행복한 날만 있지 않다.
당연히 행복한 일이 일어난 뒤의 좌절감이나 슬픔도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인생은 아니니까.

심리학자들은 그런 힘든 과정을 견뎌내는 좋은 방법이 일상에서 작고 소소한 행복
이 빈번히 있는 것이라 말한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향후 저성장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의 경제생활에서도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만족보다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모아가는 과정의 만
족과 기쁨을 아는 것, 적절한 소비와 소유로 적게 벌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객관적이고 적당한 수준의 금융지식을 공부해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 필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경제의 모습이다.

물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지식과 금융정보를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는 모른다.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알면 행복해지고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경제생활을 해왔지만 늘 돈에 쫓기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다. 미디어와 금융회사와 그에 동조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로 인해서이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균 25억 원이라 답했다. 너무 많다고 느끼는가? 아이러니하게 25억이라는 돈은 설문조사를 한 2014년 시점에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이었다. 여러분은 상위 1%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월 소득의 100% 정도만 비상금통장에 있어도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행복감이 높아진다. 여러분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가? 매 월 소비하고 결제되는 돈 이외의 여윌돈 말이다. 지금까지 돈을 적게 벌어서 그만큼의 돈을 모으지 못 한 건 아닐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경제공부보다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비상금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돈에 대한 무기력증

여러분은 돈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소득 대비 적절하게 소비를 통제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경제생활 초창기에는 자신감도 있었고 돈 관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얼마를 벌든 소득의 일부는 저축을 하고 일부는 소비도 하고 즐겁게 돈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빚은 갚아도 줄지 않고 오히려 경제생활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그로인해 돈을 통제하고 모아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렸다. 여러분이 돈에 무기력하게 된 원인 중 첫 번째가 빚이다.

“돈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뭐해? 빚이 이렇게 많고 갚아도 줄지 않는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것 사면서 살지 뭐” 누구나 이런 마음이 되어가는 것이다.

한 달 한 달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려고 해도 가끔씩 발생하는 목돈 지출 또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매 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자동차 보험료나 명절비용 휴가비용 등을 우리는 평상시에 모아놓지 않고

살아간다. 그 비용은 손쉽게 신용카드 할부로 해결할 것이다. 또한 예상치 않은 지출이 돈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자동차수리비용이나 부모님 병간호 비용 등 가끔씩 발생하는 지출 말이다.

이런 일들이 돈을 통제하기 힘들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임시방편용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한 달을 열심히 일해 번 돈 중에서 일부는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를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산다면 돈에 무기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돈이 통제 되지 않는 이유, 무기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근원적 질문이 필요하다. 스스로 돈에 무기력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심리라는 개념이 있다. 돈에 대한 마음을 말한다. 돈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너무 부유했거나 너무 가난했다면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가진 돈에 관한 태도가 문제여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돈이 너무 많은 집에서 자라면 과소비를 할 확률이 있고, 돈이 너무 없는 집에서 자라면 평생 돈만을 생각하며 자린고비로 자랄 확률이 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태도는 우리 마음속의 장애가 되어 무의식 속에서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착화 시킨다.

과소비, 저소비, 일중독, 저장강박증, 충동소비, 한탕주의 모두 자신의 성장과정과 환경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와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가 어렸을 적 부모에게 받은 강압적 가정환경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만일, 여러분이 돈에 무기력하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돈에 관한 불안

우리는 돈에 관해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질병과 사고를 당했을 때 드는 비용에 대한 불안, 노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 소득이 없을 것에 대한 불안,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볼 것에 대한 불안, 자녀의 대학자금과 결혼자금에 대한 불안. 왜,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했을까?



불안을 통해 이익을 보는 곳은 어디일까? 불안을 과대포장하고 불안 요소를 더 확장해서 상상하게 만드는 건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다. 왜 그럴까? 누구나 생각하듯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다. 보험은 확률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많은 보험계약을 통해 스스로의 위험을 줄여 나갈 수 있다. 우리도 불안해하는 위험의 근원을 파악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는 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위험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위험의 내용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절히 대비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노후에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든다면 그 소득에 맞게 소비규모를 줄여서 살면 된다. 노후준비를 할 때 금융회사 관점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연금인 국민연금 위주로 준비해도 된다. 나이가 들어 중요한 것은 돈보다 건강한 몸과 사람과의 관계다.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건 실패하는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나의 소득과 자산상황에 맞게 원칙을 세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류에 편승하기 때문이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은행 금리 두 배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잡는다면 불안해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스스로 주식이나 금융을 공부하기보다 똑똑한 전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공부를 하고 투자한 뒤에는 그들을 믿고 유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자녀를 왜 대학에 보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좋은 직업에 대한 기준을 부모의 관점이 아닌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변하는 시대에 맞게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좋은 직업을 얘기하기보다 돈에 관한 올바른 태도를 훈련시켜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 것인지,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로서 직업을 가질 것인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 물론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찾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자녀에게 교육비를 많이 투자한다고 자녀가 성공적인 직업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경제적 한도 내에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함께 진로를 고민하고 돈을 적게 들여서도 대학을 갈 수 있고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지시하지 말고 자녀의 생각을 들어주는 것이 과도한 교육비를 들여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오늘부터 불안을 조장하고 확대하는 보험

회사와 증권사, 은행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흔들림 없는 삶의 기준을 정해 보는 건 어떨는지.

삶의 간소화

2014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향후 50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6%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저성장 시대가 아니라 뉴노멀(새로운 기준)시대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세상에는 돈에 관한 관점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삶을 간소화해야 한다. 저비용 구조의 삶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물건 소유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물건으로 채워진 집이 아니라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물건 소유의 비용을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공유하는 데 써야하지 않을까. 물건이 나를 대변하고 표현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물건소유의 간소화는 소비에 대한 생각의 전환으로 가능하다. 소유보다 공유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행을 할 때 고가의 호텔에서 숙박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를 통해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쏘카'라는 카셰어링회사를 통해 30분 단위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혼자 비싼 월세를 내고 아파트에서 살기보다 함께 공간을 이용하는 '셰어하우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장비나 기계를 소유하기보다 인근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다시 돌려준다면 평생 몇 분밖에 사용하지 않는 전동드릴을 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유경제가 바뀌 놓을 우리의 경제생활이다. 앞으로 젊은이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 질 것이다. 공유경제가 시장경제를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부분 보완할 거라 생각한다.

두 번째, 인간관계의 간소화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과의 경쟁과 비교를 통해 살아간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다시는 안 볼 수도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착각한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가 편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소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세 번째, 일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현실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이 바쁜 일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무엇을 위해 바쁜 걸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일과 더불어 가족과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진 일을 잘하기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이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 주어진 일을 잘해내고 행복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위안과 행복을 찾아야 내 삶이 윤택해지고 주어진 일을 더 잘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돈 버는 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다. 과거의 직업이나 직장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확실한 경제변화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발전으로 내 일이 사라질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이 요구하는 직무를 배워야 한다. 창업이 아니라 창직을 해야 한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다. 하나의 직업이나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직업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한다. 필자는 강사이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며 펀드와 보험을 판매한다. 때로는 유료로 재무상담도 한다. 필자의 직업을 무슨 말로 규정할 수 있을까?

소비와 관련된 심리

우리는 소비유흥사회에 살고 있다. 하루라도 소비하지 않고 살 수 없다. 소비와 관련된 심리 몇 가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손실회피심리'가 있다. 사람은 이익으로 얻는 기쁨보다 손실이 발생할 것에 대한 위험을 더 강하게 인식한다는 의미인데, 대형마트를 가면 항상 원플러스원 행사를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심리를 말한다. 그 상품을 원래 사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감정이 손실회피심리라는 말이다. 우리는 항상 소비하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이 물건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지? 현명한 소비는 세일을 해서 싸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물건을 세일할 때 구매'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심리계좌'가 있다. 사람은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계장부에 따라 주관적 비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되거나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으면 저축하기보다 무조건 소비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비합리적 소비를 하기 전에 망설이기 전략을 실행하면 된다. 비상금통장을 만들어 놓고 회사에서 예상하지 않은 보너스를 받으면 일단 통장에 적립해 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사람은 평상시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다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소비를 하고 싶은 시점에 강제로 소비를 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좀 더 현명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매몰비용의 오류'가 있다. 어떤 일 또는 행위에 투자한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이 아까워서 앞으로 더 큰 손해를 입을 확률이 커도 포기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제적 관점에서 실수를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이 들었든 당장 그만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심리를 말한다.

대표적인 게 과거에 잘못 가입했던 보험 상품을 해약하지 못하는 경우다.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해

약환급금이 적어서 해지를 못하는 건 보험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보험 상품은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 각각의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해서 운영된다. 은행의 적금과 달리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1만 5천원은 납입하는 순간 보험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쓰인다는 의미다. 보험으로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저축성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성보험은 납입하기 시작한 순간 담보한 위험인 사망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상품이란 말이다. 이미 가입한 보험 상품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납입해야할 보험료를 고려해서 해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